

'26. 2. 27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, 혐오발언 등 '유럽 검열 우회' 포털사이트 개설 준비
 - 2.19 언론은 美 국무부가 '디지털 자유' 확대를 명분으로 유럽 등 각국이 차단한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한 '자유'라는 뜻의 'freedom.gov'를 도메인으로 하는 포털 사이트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
 - ※ EU는 2008년 이후 혐오표현, 유해한 허위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삭제 의무를 강화해 왔으며, 포털 출범 시 美 행정부와 유럽 동맹국 간 불안 요소가 작용할 전망이다 부언

중 동

- ISIS, 시리아 임시 대통령의 親서방정책 비난
 - 2.22 ISIS는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국가의 ISIS 소탕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을 비난하고, 계속해서 서방의 조종에 따라 움직인다면 축출된 아사드 정권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경고
 - ※ 同 녹음 메시지는 ISIS가 서방의 소탕 작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 공개된 메시지로 추종자들에게 서방국가에 대한 공격을 촉구

아·테

- 파키스탄, 대테러작전으로 테러리스트 14명 사살
 - 2.19 외신은 파키스탄 대테러부대가 퀘타와 바르칸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여 최소 14명을 사살하였으며, 작전지역에서는 다량의 무기, 탄약, 수류탄 및 폭발물 등이 발견되었다고 보도
 - ※ 당국은 테러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발루치스탄 전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

- **韓, '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활동' 40대 무죄에 검찰 항소**
 - 2.20 언론은 파키스탄 테러단체 「리슈카르 에 타이바(LeT)」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
 - ※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선고했으나, 테러방지법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부언

아·테

- **호주, 시드니 도심서 '망치 테러' ...韓 남성 등 3명 폭행당해**
 - 2.20 언론은 호주 시드니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남성 3명이 백인과 중동계 인원으로 판단되는 신원 미상의 무리에게 습격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, 현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 보도
 - ※ 외교부 확인 결과 3명 중 1명이 한국인이며, 한국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치료 및 추가 진료를 받는 등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해 영사 조력 중이라 확인
- **韓 경찰, AI 드론 순찰차 1호 투입 예정**
 - 2.22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(AI) 카메라와 드론을 탑재한 순찰차 2대를 올해 4월 서울 서남권에 투입할 예정이며, 이는 해당 지역의 흉기 사용 범죄 빈도가 높아 치안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고 발표
 - ※ 同 순찰차는 차량 상부 전면과 측면의 AI카메라가 인파밀집도, 화재 및 흉기나 무기 소지 여부를 즉각 식별할 수 있다고 부언
- **파키스탄, “아프간 공습해 무장단체 80명 사살”...아프간 “거짓”**
 - 2.23 언론은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아프간 국경 지역의 무장단체 조직원 8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하였으나, 아프간 정부는 민간인 대상 공격이라며 범죄행위로 규탄했다 보도
 - ※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자국에 잇달아 발생한 폭탄테러가 아프간 기반 세력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소행으로 판단하고 보복 조치를 했다 부언
- **韓, 경호처, 'AI 기반 위험물 검색 기법' 美 특허 획득**
 - 2.23 언론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인 '인공지능(AI) 기반 엑스레이(X-ray) 화학·폭발물 등 위험물 검색 기법' 관련,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2건의 국유특허를 획득했다 보도
 - ※ 경호처장은 “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며,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 기여하겠다” 부언

역사속 테러사건

나이지리아, 대중교통 연쇄 폭탄테러

- '15.2.25 나이지리아 요베州 버스 정거장과 카노州 버스 터미널 두 곳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,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
- 1차 폭발은 11:40경 북동부 요베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류장에서 일시 정차중인 미니버스에 한 남성이 짐칸에 가방을 싣고 막 승차하는 순간 발생, 승객 12명 전원을 포함해 총 17명이 사망하고 27명 부상
- 2차 폭발은 1차 공격 발생 약 4시간 후 카노州의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승객들이 하차하는 순간 발생, 10명의 추가 사망자 초래
- 전문가들은 '보코하람'이 요베州 및 카노州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그간 유사 테러를 자행해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
- 한편, 나이지리아는 니제르·카메룬·차드 등 4개국 연합군을 편성, 보코하람 소탕에 공동 대응



테러 상식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서구식 교육은 죄악'이라는 뜻이며,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가 조직
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UN('14.5)
- (핵심인물) 「아부바카르 세카우」(現 최고 지도자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요베·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州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일대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월 「아부바카르 세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월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 발생, 이후 「아부바카르 세카우」가 이끄는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의 「ISIS-西아프리카지부」로 분열